



익숙함에서 벗어나 신선한 감각을 깨우다

Rock n Roll

글. 김경섭 KBS 수신료국

빨간 머리의 서태지가 노란 기타를 메고 “난 정말 바보였어”를 외치며 강렬한 밴드 사운드를 선보였을 때의 충격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라면을 맛본 순간과 같았을 것이다. 랩과 회오리춤을 선보이며 아이돌로 데뷔했던 서태지가 사실은 밴드 시나위 출신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그의 변신이 이해되긴 했지만, 그가 많은 소년 소녀의 마음속에 록앤롤의 불씨를 심어놓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즈음부터 나도 밴드 음악에 빠져들었다. 딥 퍼플의 1기와 2기를 나누며 계보를 따지거나, 프로그레시브 록과 심포닉 록을 구분할 만큼의 깊이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타 한 대를 손에 쥐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 그때의 감성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군대에서 내 연주의 시작점이 찾아왔다. 말년 병장 시절, 지루한 나날 속에서 가요책을 펼쳐 놓고 그림으로 표시된 코드를 하나하나 잡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작은 낙이었다. 점차 실력이 늘어 한 곡 정도는 완곡할 수 있게 되었고, 점호 준비로 분주한 저녁이면 신병을 데리고 나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 눈을 감게 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부모님과 작별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 후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연주는 신병들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고, 나는 누군가를 위한 연주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성을 간직한 채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친 후,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피로를 풀기도 한다. 익숙함 속의 안정감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는 마음속에 남아 있던 락앤롤 감성에서 나



처음 밴드를 시작할 때 아내가 선물해 준 기타(맨 좌측)부터, 베이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둘째 딸내미 때문에 구매했던 베이스(맨 우측)까지

왔다. 그렇게 손에 쥔 빨간 일렉 기타에서 시작된 취미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어쩌다 보니 밴드 두 곳에서 활동하게 되어 한 팀에서는 기타리스트로, 다른 팀에서는 베이시스트로 연주하고 있다.

합주는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졌고, 그전까지 곡을 익혀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 하지만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기회가 생길 때면 집에서도 반복해서 연습하며 몰입했다. 특히 건즈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은 온 가족이 떴창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쉽지는 않지만, 무대에 올라 연주를 하고 관객들과 호흡할 때면 그 모든 과정이 보람으로 바뀌었다. 대형 스타디움이든 작은 클럽이든, 라이브 공연의 강렬한 에너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짜릿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우측은 회사 선배의 도움으로 낙원상가에서 구매한 첫 일렉 기타로 벌써 20년이 되어간다. 좌우 대칭형이라 왼손잡이인 첫째 딸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지미 헨드릭스처럼 기타 줄을 세팅해 왼손용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기타다.



실력 대신 늘어가는 악기와 이펙터들



내돈내산 첫 일렉 기타, 에피폰 SG



2014년, 인생 첫 공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어느 순간, 취미가 연주인지 수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합주실에 두고 다니는 기타와 베이스, 각종 장비까지 점점 늘어나면서 한숨이 나오지만, 또다시 새로운 장비에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많은 지출에 비해 손가락은 언제나 5만 원짜리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아이들이 자라며 조금의 여유가 생기던 무렵, KBS 기자들로 구성된 밴드에서 기타를 칠 기회가 찾아왔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며 합주 후 이어지는 음주가무까지, 모든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몇 번의 합주 후 밴드는 해체되었고, 그 아쉬움에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팀을 찾았다. 그렇게 5년을 함께하며,

2014년 생애 첫 공연을 올렸다.

공연이 끝나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 실수도 잦았고, 흑역사도 추가되었다. 그래서 공연 영상을 쉽게 재생하지 못하지만, 소리가 없는 사진만큼은 부담 없이 보며 추억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때 음향 엔지니어가 꿈이었고, KBS에 입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찾아온 소음성 난청.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된 탓인지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음악을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지금도 밴드의 드러머가 운영하는 연습실에서 합주하며, 가끔 드럼 레코딩과 믹싱을 도와주고 있다.

1,2,3,4,5 합주와 공연 사진들





3



4



5



이루지 못한 덕업일치의 꿈, 하지만 괜찮아

밴드 연습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하나둘씩 공간에 모였다. 기타를 꺼내 톤과 볼륨을 맞추고, 베이스의 튜닝을 조정하고, 키보드는 전원을 켜는 사이, 정작 중요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드러머가 오지 않았다. 어느 밴드에서든 지각하는 멤버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드럼이 빠진 합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뼈대가 없는 합주는 리듬이 흔들리고, 음악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결국 대충 맞춰보다가 맛집 찾아 헤



부족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식스맨

매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말했다. “그냥 미디라도 깔고 해보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미디 드럼은 예상외로 나쁘지 않았다. 미디 드럼은 시간을 착실하게 지켰고, 컨디션을 타지 않았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연주를 이어갔다. 물론 사람 손으로 연주한 드럼처럼 뉘앙스를 살리기는 어려웠다. 기계적인 리듬은 너무 정직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덕분에

연습을 그럭저럭 이어갈 수 있었다.

생각보다 센 지각비를 도입하고, 지각이 거의 없긴 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시도로 어느새 컴퓨터는 만능 세션이 되어갔다. 신스 베이스로 그루브를 더하고, 은은한 패드로 공간감을 채우며, 기타 솔로 뒤에는 스트링이나 미리 녹음한 배경 트랙을 얹었다. 덕분에 사운드는 한층 더 풍성해졌고, 공연에서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1



아이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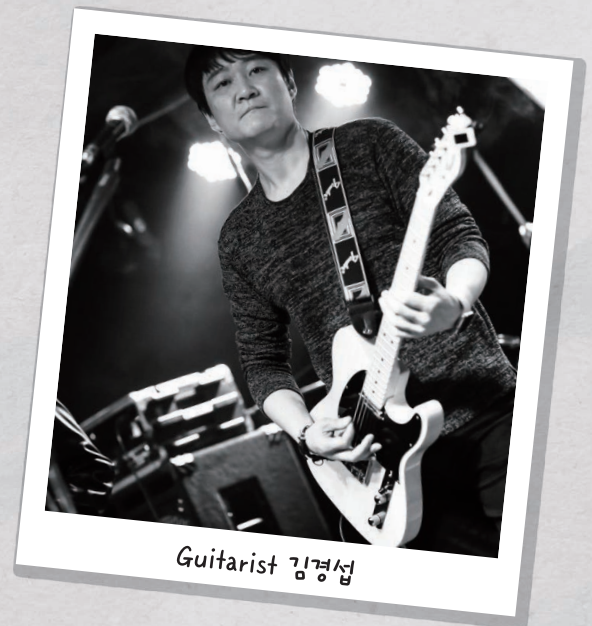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 덕분인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 때로는 내가 연주하지 못하는 곡을 들고 와 가르쳐 달라고 해 난감할 때도 있지만, 가족과 취미를 나누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스쿨밴드에 들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내 눈치 보지 않고 평소 갖고 싶던 악기와 장비를 사줄 명분이 생길 테니 말이다.

‘내 취미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얘기에 사전에서 ‘취미’를 찾아 보니 첫 번째 뜻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 위하여 하는 일이었다. 계속 읽어가다 보니 세 번째 뜻에 꽂혔다.

“감동을 느끼어 마음이 뭉치는 것.”

마음속 깊이 감정이 동요하여 흥, 즐거움이 생기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그렇다면 마음속 락앤롤 감성을 끄집어내어 심장을 뛰게 만 들고 에너지를 더해주는 직장인밴드는 완벽한 취미다. 익숙 함에서 벗어나 신선한 감각을 깨워주는 락앤롤 타임, 온전 히 그 시간을 즐기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으니 말이다. 지금은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지만 언젠가



Guitarist 김경섭

더 큰 무대에서 많은 관객을 두고 공연하길 기대해본다. 비록 그날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 가득하여 돋보기와 지 팡이가 필요할지라도, 기타를 멘 채 락앤롤을 외치며 연주 할 것이다. 그날까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이 멋진 취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